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4호 [루계 제25743호] 주제 106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천번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다시한 번 어버이의 사랑이 물들이 흘러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세 세대들의 회랑과 세동이 활짝 꽂혀나온 풍랑속에서 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서 알달의 주인공들로 뿐만 아니라고 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처럼 자자하고 행복한 새세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는 걱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궁전의 전체 교직원들과 소조원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밤을 담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주체조선의 밤은 미래와 세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꽂아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열성들은 궁전의 교직원들과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빼스를 비롯한 선물들을 정의 다향과 함께 환하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둘려주신 사랑과 배려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도록 할데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회 1부서, 관제부문, 공공기관의 일군들, 교직원들, 금성대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쇄신품으로 헌납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간사전의 앞장에서 애국 헌신의 강령군길을 이어 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사업에 깊은 관심을沛비시고 또다시 사령의 선물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후대들에 기우는 사업을 당과 국가의 계획에 맞추어 일상의 주인공들로 뿐만 아니라고 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처럼 자자하고 행복한 새세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는 걱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학생의 밤은 미래와 세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꽂아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궁전의 교직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들을 전상에 세우고 모든 차례와 정성을 다 바쳐 교육방법과 범수부단이 개선하여 학생들은 《조선을 위하여 베우자!》라는 구호를 들고 지역재를 갖춘 유능한 학생으로써 세계로 더불어 나갈것이라고 그들을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한 생토록 잊지 않고 파의 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강대한 우리 조국을 떠나고나간 후배대로 끈튼히 함께 함께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을 말하였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빠고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둘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장내에 뜨겁게 급이쳤다.

모임에서는 견의문이 제작되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카보샤풀센트로당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카보샤풀센트로당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카보샤풀센트로당 위원장이 카보샤풀센트로당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인민보안성 제1병원 1회과 군인, 간호원들은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고 자기의 비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원활성을 힘있게 파악하는데 이번

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돌격대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강원도민인원회 책임부원 강철수는 지난 30여년간 온 기족과 함께 김일성업적으로 자자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금성대에 건설자체 사업에서 막상수는 철길건설을 위하여 풍요로운 천연자원과 함께 김일성업적으로, 물질적으로 들통고를 놓았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건설전투에 함께 참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267인민반 차장도 조남충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건설자체들과 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당의 풍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발달하고 청진강-평남관개를 길건설돌격대에 탄원한

보통강구역의 봉사사업소로동자 리영금은 공사초기부터 물과 물자들을 전투현장에서 애

는 일에 한 몸 다 바쳐온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을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전쟁로병들은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언들이다』를 위대한 출판사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온다.

본사기자

의 귀중한 보배들로, 위대한 전승에서 떠난 빛나고 있는데

대에 잘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았다.

전쟁로병들은 민족의 정한 영웅들로, 친정한 애국자들로 기록되어온 혁명선언들이로써 남에게는 적극 지지해온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저작을 읽고 조선의 철병로병들이

# 선군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 병진의 가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남장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 땐 치러낸 천만군민의 보복의지가 하늘에 막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탈권력을 꽝기며 빼앗고 감히 해전생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도발자들의 무모한 발狂은 절대로 용서 할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절경 하여 미친듯이 설쳐げる수록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새로운 명령포선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시시각각 절감하고 있으며 역사의 힘으로 경두에서 베치시켜 사회주의 조선을 주체의 행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절번 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뜨거운 경묘의 정에 훌쩍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암살하려는 적들의 행동에 제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험할수록 견지하고 나라이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마침내 국가핵무력 완성의 최종판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한 끝길은 장소에서였다.

세계를 이어온 밤마디 결전에서 또 하나의 경이적인 승리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로는 국방과학기관들의 가슴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환호와 격정으로 새롭게 물들었다.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오늘의 끊임없는 시련은 아파하는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사랑의 냄새로 품어 껴안아주시고 오래도록 기쁨을 함께 나누어 신령한 힘을 더해주는 천만군민의 힘으로 한도로 끝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로 한도로 끝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밟아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비치신 천만로고는 가슴 속깊이 묻어두시고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우리 인민을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 자신의 일과 정, 온유를 다비쳐오신 그 불멸한 명도의 나날들을 어찌 경직임이 되새길수 있으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원회의를 맞을수 없다.

우리의 자주적권리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이며 날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재와 압살의 포위환을 조이는 한편 핵전쟁도

화선에 불을 탈리하고 미친듯이 발악 하면 데쳤다.

혁명의 전의와 생사를 관가리하는

한국인민과 민족의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명령은 천

년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회제의 위인, 무비의

단역과 강렬의 의지로 지니신 우리 원수님께서서만이 해하시고 이끄실수

있는 민족사대업이였다.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해쳐나가는은 더욱 어찌운 병진의 길이었다. 과연 우리 당이 이 길에서 한걸음이라도 주저했던가, 한치라도 어울았던가.

오직 끝바로, 순간도 멈출없는 현

속전적전이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눈부

신 대성공과 더불어 국방력강화의

시련들이 떠나온 지난해의 날들이

우리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민족의 천만민대를 역적 같이

담보하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조선

의 힘, 조선의 속도가 과연 어떤것인

가를 뚜ば로 알게 되기까지는 걸로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체

입학경과의시험에서의 성공, 대출력

보통의 의지와 결단력으로는 결코 얹 두도 낼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무대에서 택배권을 유지하며는 혈강들의 헐저하고 악격한 공동보조, 광활적인 정치외교적합해과 악착한 경제봉쇄, 강도적인 무역침공등

이 모든것을 작로해야 하는 말그대로 사생결단의 길이 바로 병진의 길이었다.

지역내국,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는 나라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부기보유를 시도한 대가로 가혹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전쟁과 핵무력전쟁의 명운은 천

년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회제의 위인, 무비의

단역과 강렬의 의지로 지니신 우리 원수님께서서만이 해하시고 이끄실수

있는 민족사대업이였다.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해쳐나가는은 더욱 어찌운 병진의 길이었다. 과연 우리 당이 이 길에서 한걸음이라도 주저했던가, 한치라도 어울았던가.

오직 끝바로, 순간도 멈출없는 현

속전적전이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눈부

신 대성공과 더불어 국방력강화의

시련들이 떠나온 지난해의 날들이

우리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민족의 천만민대를 역적 같이

담보하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천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모습을 띠는 순간 일군들이

온금시에 심장이 열어드는 듯했다.

그처럼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찌 모실수 있

단 말인가.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사대를 향하여 성평성금을 걸음을

옮기시였다.

조국의 존엄과 안녕이 실려있는

주체란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이인듯 그

처럼 대견해하시며 환히 웃으시면

우리 원수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렇듯 열광한 사랑과 수호정신을

지니시았기 때문에 8월에 진행한

경력잠수함 한도한수증 시험발사

의 대성공을 위해서만도 그도 회생식

인 현진과 눈물을 흘리고 그려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할 없이 서있는 구호문은 백두산에 뿐이니

우리 혁명신념을 확고화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혁명신념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사소한 목표도

없이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펴쳐

왔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진진에 신념

과 의지의 고집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놓이 되어보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로도 자신의 혁명신념에 대하여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그것은 혁명신념이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신

법과 의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배움의 역사들을 궁지

# 민족무도발전의 거점답게 훌륭히 개건된 래권도전당 준공식 진행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만들어 래권도전당이 민족무도발전의 거점답게 훌륭히 개건되었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래권도전당에는 수천석의 판랑석을 가진 도장과 선수대기실, 의료실, 심관원실, 과학기술보급실, 국제통신실, 기자회견실을 비롯한 국제국내 경기들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들과 동시에 그려졌다.

래권도전당이 사회주의 분명 강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됨으로써 래권도전당에 좋아울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이고 래권도전당의 지위에 맞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무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큰 한 토대가 마련되어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래권도전당 준공식이 21일에 전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용해동지와 김경호 조선래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대전당사무장, 설, 중앙기관인 군들, 전당개보수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 조선로동당위원회 종업원들, 평양시안의 래권도선수, 감독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최용해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일신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 등을 무자비하게 쳐갈며 만리마속도로 질풍노도로 내달리고 있는 각 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개건된 래권도전당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뒤판과 기성이 깃 들어있는 래권도를 민족정통무도로 내세워주시고 그 발전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변불휴의 원심과 료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81(1992)년 9월 10일 청춘거리에 새로 일떠선 래권도전당에 몸소 나오시어 래권도사범, 선수들의 시대 친필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두생을 명도하시는 그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반들어 전체 인민이 누구나 래권도를 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사를 직접 밟아하고 정역적으로 흥으로 떠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춘거리에 래권도전당을 일마세우도록 하여주시고 《래권도전당》이라는 친필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천당형성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광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온정속에 래권도전당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게 된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천체 참가자들과 래권도 선수, 사범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바쁘신 속에서도 래권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땅딸과 망돌들을 밟혀 주시었으며 래권도전당개관보수공사를 직접 밟아하고 정역적으로 책임으로 진행하고 전설자재와 일비들을 제때에 보장해 주었으며 수종이 좋은 나루들과 꽃관목들을 드리었으며 민족무도발전의 전성기를 열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높은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사상·의학·체육·박물·도법·체육 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훌륭한 설계도파라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높이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파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습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이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 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두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배방으로 용호하며 당의 사상파 명도를 충청으로 달아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두사들로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래권도전당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해 나감으로써 전당에 것들에 있는 철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을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과학기술을 실질운영을 정상화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끌어올리고 높여나갈 때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일신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충돌격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래권도전당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 라선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자력자강만이 살아가는 길,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은 생산봉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벅찬 투쟁과정에 라선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래권도전당에 바꾸는것을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방불한게 아니었다.

최기여 이 사업은 순풍에 둑을 타듯이 험하게 되어갔다. 그런데 얼마후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일컬을 가로막았다. 국내원료로 생산한 세멘트의 질이 용당할 수

줄이면서도 경제충구제를 위한

시업률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마음

먹은대로 내밀수 있는 유점이

있었다. 그러나 산림경영소에는

생물농약생산에 대한 과학이 있

는 사람에게 한사람도 없었다.

산림복지기구에서 양묘장을 전시에 편약을 생활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는 당시 뜻을 되새길수록 모체양묘장을 자체

지도 보장할수 있었다.

이때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협의회원가자들에 준 충격은 없는것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앞으로도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다른 단위에 험의 힘에 대한 것을 끌어내리며 경쟁적으로 선행공정에 참여하기 하였다.

지배인 청동주동무는 말하였다.

『동무들,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된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해법이라는 힘과 때 도를 가져야 저해도 나오고 신심과 의지도 생기는 법입니다.

자는 과제를 풀어내려고 있다.

그는 그들의 말대로 하면 과

제기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그러나 많은 시일이 걸리는것이 문제였다.

온 나라가 만리마속도장으로

걸려들었을 것이다.

제일 애를 먹은것은 원료로 멀

까지의 거리를 학제적으로 정하고 고압기압에 시간을 측정하는

계기까지 설치하였다.

피터는 사색과 노력끝에 드디

어 고압기압을 훌륭히 완성되었

다. 이들은 이처럼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에 대해 기술적

방법을 벌써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과

이어온 어떠한 달辱을 모여

온들은 와보는 사람마다 부끄러워하는 풍물은 모체양묘장이 꾸려

겼던것이다.

개인을 찾은 일군들과 종업원

들은 원료와 증기나 나오는 곳

까지의 거리를 학제적으로 정하고

고압기압에 시간을 측정하는

계기까지 설치하였다.

피터는 사색과 노력끝에 드디

어 고압기압을 훌륭히 완성되었

다. 이들은 이처럼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에 대해 기술적

방법을 벌써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자기 힘을 믿고 끝내 자체의 힘으로

생물농약생산공정을 갖추어놓

고 암말았다.

이것은 나루모생산도대를 갖추기 위한 후정과정에 있은 하

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 만리마대진군에서 초금당조직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치자

## 초금당위원회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되도록

### 북창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당 조직들이 전투적위력을 펼치자면 당정책관찰의 제1선호소를 치지션 회선정치일군인 초금당 위원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 정적으로 들어야 한다.

북창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 1월 소창리에 나갔던 군당책임일군은 저룡생산실적에 치치고 있는 사실에 눈길을 돌렸다.

더 옥스체보낸수 없는 것은 거를 영산부문에 대중을 이를 어나거나 할 때당일군들이 불리한 조건에 포로되어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 기 단위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과 학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군당책임일군은 거를생산을 추구해 우기 위한 방도를 놓아온 당원들이 대중의 앞당기면서 이전작적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대한 기록, 기관차가 되기 위해서는 찾았다.

군당위원회는 이전작적물제를 당시군의 자격 문제로 보았다. 이것은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자신에게 면서 내린 출격구령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신령하동무는 군의 전반사업을 돌보는 바쁜 속에서 군인의 근로단계조직들이 사이

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마련한 수백의 거리를 살고 소창리에 나갔다. 낮에는 농장원들과 어울려 거를생산을 하고 밤에는 당원들과 미주아이 거를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했다. 이것은 리당위원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후 피당위원회의 일본내가 달라졌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한겨울에도 눈길을 해치며 거리를 날렸다. 어느 날에는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한밤을 새워 마련한 거리를 달구지에 싸고 농장원들을 불러리쳤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세워진 척박한 땅을 막아두기 위해 사업을 따라왔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본보

기로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평도업적단위를 본모기단위로 정하였다. 이 단위 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그것을 불리로 군인의 초금당위 원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업적 단위인 북창군당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였다.

군당위원회는 강력한 진실지 루무를 조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계기된 문제를 접종지도의 방법으로 물어나갔다. 현지에서 초금당위원회들의 협의회를 수습차례 조직하였다.

양어不錯보수와 올라리왕사, 나무심기와 진행될 때에는 군당일군들이 통동원되어 일체를 메고 대중을 발동하였다. 하여 4개월 후에는 혁명사제교양실과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생산조종체계를 확립한 종합조종실이 풀려나기 시작하였다.

대령의 날새 온실 확장공사가 빌어왔을 때에도 그랬다.

다른 단위도 조간이 어려웠다. 공사를 계기로 초금당위원회

전적으로 보증해 나섰다. 이 사

설이 대중에게 준 영향은 커다란 차이를 같이 표시하시였다.

『라고난 뒤를어진 사람과 함께 있으며 뛰르고 놓은 차이는 있어도 개조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공장과

금당위원회로 임명되

어운 경쟁률로는 군인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풀

어나갔다. 하여 평대한 공사를

제회되었던 것보다 앞당겨 끝내게

되었다.

북창당사업소의 면모를 일

신시키기 위한 사업과 대평리

면모를 기록하였다.

모범적인 초금당위원회의

경험과 가정주위환경, 성격 등

두손을 풀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미칠전에도 한 직행

길군을 통하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북창군

기초식품공장의 면모가 일신된

사실, 사방야제사업소의 일군

들과 도통사들이 1년동안에 해

야 할 하천공사를 한달동안에

사업소자체의 힘으로 끝낸 사

설, 물거리를 태우며 네이버를

리용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게 한 사실 등을

놓고 말수 있다.

만리미속도창조를 위한 전민

총동력들이 일몰에 벌어지고 있는

각동적인 혁신은 초금당위원회들에게 분교였다.

『동무는 제1차 천당초금당위

원 천대회경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모든 초금당위원회들은 새대의

이 암울한 물을 실천적사업

과로 대답해야 한다.

본사기자 손영희

## 일군들이 앞채를 빼고 달린다

### 포재배어업사업소 초금당위원회에서

단위사업에서 비약발전을 일으킬 힘을 큰 착작률로 꺾었다.

자재와 기술력 등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그러면 단위가 지난해 충청의 7·01전투와 2·0·01전투 기간 분발하여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물질기술적토대도 둘른지 살았으며 윤리인정제 계획을 지난 6월까지 넘쳐 수행함으로써 사단들의 이무를 꺼냈다.

이 모든 성과는 이곳 초금당 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증과 빠져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적돌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찰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이 사업소와 일본제를 확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초금당위원회 김정원과 지배인 영선방동무는 사업소의 제작장을 놓고 심중한 토론이 있었다. 언제까지 무택한 사업소로 남아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정책관찰을 떠나 당조직과 일군들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을 쳤다.

자체가 큰것만큼 새롭게 분발할 결심도 비상했다.

초금당위원회는 짧은 기간에

매봉맞을 창압도입하여 불리한 이황조건에서도 비단나물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곳 초금당위원회 사업은 일군들이 일제를 떠내 대중의 자

모범으로 일봉파출과 올라가는 대오의 기수가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면 기수의 지적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시기 동당에서는

모든 초금당위원회

들이 대중의 앞장

에서 이전작의

대오의 기수를 뽑아내기는

매봉맞을 일기하기에는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모든 초금당위원회들은 대오의

이 암울한 물을 실천적사업

과로 대답해야 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길무들은 자기 부문 사업에 정을 하며 단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농장의 일군들은 불론

비 품에는 질소, 펜, 카페인분이 많아 들어있으며 불기가 충분하여

매봉도 잘 번지다. 그러나 9월

부터 10월사이에 불은 불과 1년

넘침을 겪었다.

하지만 농장의 일군들은 불론

비 품에는 질소, 펜, 카페인분이 많아 들어있으며 불기가 충분하여

매봉도 잘 번지다. 그러나 9월

부터 10월사이에 불은 불과 1년

넘침을 겪었다.

그리면서 그는 당정책을 기계

적으로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

고 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찰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이 생긴다는 것

것을 결심하고 일군들을 부리

고 청할 때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